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I)



저자 배한울

01

다음은 어느 식물 종의 개체 P1에 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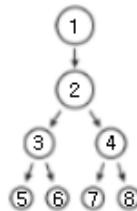
- P1의 표현형은 우열이 분명한 각각 2개의 대립유전자로 이루어진 대립유전자 n쌍에 의해서 결정된다.
- P1의 대립유전자는 모두 이형접합이다.
- P1을 자가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이 ①일 확률은 $\frac{9}{32}$ 이다.
- P1을 자가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이 ②일 확률은 $\frac{3}{64}$ 이다.

P1을 자가교배해서 나온 표현형이 ①인 자손중 하나와 표현형이 ②인 자손중 하나를 교배해서 나온 개체의 표현형이 P1과 같을 확률은? (단, 교차와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① $\frac{4}{27}$ ② $\frac{5}{27}$ ③ $\frac{2}{9}$
 ④ $\frac{7}{27}$ ⑤ $\frac{8}{27}$

02

그림 (가)는 핵상이 $2n=6$ 이고 성염색체가 XX인 동물의 난자형성과정동안 관찰되는 세포 1~8을 나타낸 것이다. 표 (나)는 세포 1~8중 특정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유전자형은 AaBbDd이고, 세 쌍의 대립유전자는 모두 독립된 염색체에 존재한다.



(가)

대립유전자	세포 개수
A또는 a	5
B또는 b	7
D또는 d	①

(나)

(가) 과정동안 비분리는 총 2회 발생했고, 세포 5의 염색체 수는 '5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2점]

- <보기>
- ㄱ. ①은 '8'이다.
 ㄴ. 6의 염색체 수는 '4개'이다.
 ㄷ. 7의 염색체 수는 '3개'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5

다음은 핵상이 $2n$ 인 동물 P의 생식세포 형성에 대한 자료이다.

- P의 ①회의 생식세포 형성과정에서는 비분리가 1회 발생했다.
- 유전자 ②, ③, ④는 서로 대립유전자 쌍이 아니고 독립된 염색체에 존재한다.
- I, II, III, IV는 ⑤의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4개의 세포로 핵상이 모두 다르다.
- 아래의 표는 I~IV에서 ②, ③, ④개수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I	II	III	IV
②, ③, ④의 수의 합	1	2	4	8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교차와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기>

- ①에서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발생했다.
- ③의 핵상은 n 이다.
- 문제에 제시된 유전자 쌍만을 고려했을 때, P는 이 형접합인 대립유전자를 2쌍 가진다.

- | | |
|--------|--------|
| ① ㄱ | ② ㄴ |
| ③ ㄱ, ㄴ | ④ ㄱ, ㄷ |
| ⑤ ㄴ, ㄷ | |

06

다음은 어느 가족의 유전병 ①~④에 대한 자료이다.

- ①은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 ②은 대립유전자 B와 B*에 의해, ③은 대립유전자 C와 C*에 의해 결정되고 세 쌍의 대립유전자의 우열은 각각 분명하다.
- A*, B*, C*는 유전병 유전자이다.
- ④의 대립유전자는 ①~③의 대립유전자 중 하나와는 연관이고 하나와는 독립이다.
- 구성원 1의 유전자형은 'AABB*CC*'이고, 구성원 2의 유전자형은 'AA*BB*CC*'이고, 구성원 3, 4는 이들의 자식이다.
- 아래의 표는 구성원 1~4중 유전병 ①~④를 가지는 구성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병	①	②	③
구성원 수	1	2	3

- 구성원 1과 2 사이에서 유전병 ①~④를 모두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frac{3}{8}$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교차와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기>

- ①~④의 대립유전자는 같은 연관군에 속한다.
- ①~④ 중 우성형질은 2가지이다.
- '1과 2사이에서 유전병 ①~④ 발현 여부가 3과 같은 자식이 태어날 확률'과 '1과 2사이에서 유전병 ①~④ 발현 여부가 4와 같은 자식이 태어날 확률'을 더한 값은 $\frac{1}{4}$ 이다.

- | | |
|--------|--------|
| ① ㄱ | ② ㄴ |
| ③ ㄷ | ④ ㄱ, ㄴ |
| ⑤ ㄱ, ㄷ | |



PART 1

실전 문제

실전처럼 풀어 봅시다.

01 ⑤ (☆★★★★)

아이디어 체크

주어진 개체의 대립유전자가 모두 이형접합일 때, 해당 개체를 자가 교배했을 때, ‘특정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로 가능한 값’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한 쌍의 대립유전자

$A \mid a$ 자손의 표현형이 A_일 확률은 $\frac{3}{4}$, aa일 확률은 $\frac{1}{4}$ 이다.

2) 두 쌍의 상인연관된 대립유전자

$A \mid a$
 $B \mid b$ 자손의 표현형이 A_B_일 확률은 $\frac{3}{4}$, aabb일 확률은 $\frac{1}{4}$ 이다. 독립된 한 쌍의 대립유전자와 같은 확률이 나옴을 알 수 있다.

3) 두 쌍의 상반연관된 대립유전자

$A \mid a$
 $b \mid B$ 자손의 표현형이 A_B_일 확률은 $\frac{1}{2}$, A_bb 또는 aaB_일 확률은 $\frac{1}{4}$ 이다.

4) 세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

두 쌍의 대립유전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이형접합인 대립유전자만을 가지는 개체를 자가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자손이 한 연관군에 대해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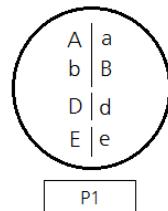
생각할 때, 특정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frac{1}{4}$, $\frac{1}{2}$, $\frac{3}{4}$ 세 가지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설 아이디어 체크를 참고해서 P1을 자가 교배해서 표현형이 ①인 자손을 가질 확률인 $\frac{9}{32}$ 를 보면 $\frac{9}{32}$ 는 무조건

$\frac{3}{4} \times \frac{3}{4} \times \frac{1}{2}$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P1은 세 개의 연관군을 가지는데 하나의 연관군에는 두 쌍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상반연관되어 있고, 두 개의 연관군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거나 두 쌍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상인연관되어 있다. 같은 방식으로 P1을 자가 교배해서 표현형이 ②인 자손을 가질 확률인 $\frac{3}{64}$ 을 보면 $\frac{3}{4} \times \frac{1}{4} \times \frac{1}{4}$ 이 됨을 알 수 있다. $\frac{1}{4}$ 이 $\frac{1}{2} \times \frac{1}{2}$ 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①의 경우에서 P1이 세 개의 연관군만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P1이 가지는 세 개의 연관군 중 두 쌍이상의 대립유전자를 상반연관으로 가지는 연관군을 편의상 ‘연관군1’이라고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거나 두 쌍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상인연관 되어있는 두 연관군을 ‘연관군2’, ‘연관군3’이라고 하자. 또한 문제에서 묻고 있는 확률은 연관군2와 연관군3에 몇 쌍의 대립유전자가 연관되어있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상 연관군2와 연관군3에는 각각 한 쌍의 대립유전자 D, d와 E, e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연관군1에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A, a와 B, b가 상반연관 되어있다고 생각하자. 이러한 P1의 연관 상태를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제 ①가 어떤 표현형인지를 알아보면 $\frac{9}{32} = \frac{3}{4} \times \frac{3}{4} \times \frac{1}{2}$ 에서 두 개의 $\frac{3}{4}$ 은 연관군2와 연관군3에서 각각 D_, E_인 표현형

이 선택될 확률이고, $\frac{1}{2}$ 은 연관군 1에서 A_B_가 선택될 확률이다. 따라서 ①는 A_B_D_E_이다. 같은 방법으로 ②가 어떤

표현형인지를 알아보면 $\frac{3}{64} = \frac{3}{4} \times \frac{1}{4} \times \frac{1}{4}$ 에서 $\frac{3}{4}$ 은 연관군2 또는 연관군3에서 D_ 또는 E_가 선택될 확률이고, 하나의

$\frac{1}{4}$ 은 연관군2 또는 연관군3에서 dd 또는 ee가 선택될 확률이고, 하나의 $\frac{1}{4}$ 은 연관군1에서 A_bb 또는 aaB_가 선택될 확률이

다.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②가 D_ee인지 ddE_인지, A_bb인지 aaB_인지에 상관없이 같을 것이므로 ②를 A_bbD_Ee라고 생각하고 답을 구해보자.

연관군1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보면 P1의 자손 중 표현형이 ①인 개체는 무조건 A,b가 연관된 염색체와 a,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가진다. P1의 자손 중 표현형이 ②인 개체는 A, b가 연관된 염색체를 두 개가진다. 이들을 교배해 P1과 표현형이

같은 A_B_인 개체가 나올 확률은 $\frac{1}{2}$ 이다. 연관군2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P1의 자손 중 표현형이 ①인 개체와 ②인 개체

모두 유전자형이 DD일 확률은 $\frac{1}{3}$, Dd일 확률은 $\frac{2}{3}$ 이다. 이들을 교배해 P1과 표현형이 같은 D_인 개체가 나올 확률은

$\frac{8}{9}$ 이다. 연관군3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P1의 자손 중 표현형이 ①인 개체의 유전자형이 EE일 확률은 $\frac{1}{3}$, Ee일 확률은 $\frac{2}{3}$ 이

다. P2의 자손 중 표현형이 ②인 개체의 유전자형은 항상 ee이다. 이들을 교배해 P1과 표현형이 같은 E_인 개체가 나올

확률은 $\frac{2}{3}$ 이다. 문제에서 묻는 답은 세 개의 연관군에서 구한 확률을 모두 곱한 $\frac{1}{2} \times \frac{8}{9} \times \frac{2}{3} = \frac{8}{27}$ 이다.

Comment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두 개의 확률을 아이디어 체크의 내용에 기반하여 세 개의 확률로 나눌 수 있는가였어요! 아이디어 체크의 내용을 보통 모두 외우고 다니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즉석에서 케이스를 분류해 어떤 확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 계산까지 허접이 째 긴 문제이기 때문에 별점을 째 높게 책정했어요. 이 문제 풀이의 중간 중간에 보면 풀이를 간략하게 해주는 연관군2와 연관군3에 한 쌍의 대립유전자만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던가, ②를 A_bbD_Ee라고 확정 시켜버리던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풀이했다면 아마 별점을 책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웠나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 틀렸다고 기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02 ① (☆☆☆☆★)

해설 해당 동물의 핵상은 $2n=6$ 인데 5번 세포의 염색체 수가 5개라는 것은, 핵상이 $n+2$ 라는 것이다. (가)과정 동안 비분리는 2회 발생했으므로 2번 세포에서 3번 세포로 염색체가 비분리 되어 이동했고, 3번 세포에서 5번 세포로 염색분체가 비분리 되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대립유전자가 어느 과정에서 비분리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표 (나)를 보면 대립유전자 A또는 a가 들어있는 세포가 5개인데 만약에 정상 분리가 되었다면 1~8번 세포까지 모두 A또는 a가 있어야 한다.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고려해보면 감수1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5개의 세포에서 A또는 a가 관찰되고 감수 2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7개의 세포에서 A또는 a가 관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A, a가 감수1분열에서 비분리, B, b가 감수2분열에서 비분리 되었고 D, d는 정상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ㄱ. D, d는 정상 분리 되었으므로, 모든 세포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④ = 8이다. (○)
- ㄴ. 6의 핵상은 $n+1$ 이 된다. 따라서 염색체 수는 3개이다. (✗)
- ㄷ. 7의 핵상은 $n-1$ 이 된다. 따라서 염색체 수는 2개이다. (✗)

03 ③ (☆☆★★★)

아이디어 체크

주어진 개체의 대립유전자가 모두 이형접합일 때, 해당 개체를 자가 교배해서 자손을 얻었을 때,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들이 몇 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한 쌍의 대립유전자

A | a 자손의 표현형이 A_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2가지이고, aa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1가지이다.

2) 두 쌍의 상인연관된 대립유전자

A | a
B | b 자손의 표현형이 A_B_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2가지이고, aabb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1가지이다.

3) 두 쌍의 상반연관된 대립유전자

A | a
b | B 자손의 표현형이 A_B_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1가지이고, A_bb, aaB_일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1가지이다.

4) 세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

두 쌍의 대립유전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해설 문제의 조건에서 대립유전자 D, d와 E, e는 같은 연관군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두 쌍의 대립유전자가 상반연관의 형태로 연관되어있다면 A, a와 B, b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상관없이 ④와 같이 유전자형의 개수가 8개인 표현형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D, d와 E, e는 상인연관의 형태로 연관되어있다. 여기서 A, a와 B, b가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있으면



되므로 두 형질 모두 우성형질이 됨을 알 수 있다. (다)는 주어진 조건만으로 우열판단을 할 수 없다.

- ㄱ. (다)는 (가), (나)와 독립된 형질이다. (○)
- ㄴ. (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
- ㄷ. 자식2와 자식4는 (다)의 발현상태가 같으므로 (가), (나)만을 비교하면 자식2와 같이 (가), (나)를 모두 가지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위의 해설에서 찾은 것처럼 $\frac{1}{2}$ 이고, 자식4와 같이 (나)만을 가지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frac{1}{4}$ 이므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때 아이의 유전병 발현상태가 자식2와 같은 확률은 자식4와 같은 확률보다 크다. (○)

Comment

이 문제는 처음 연관인 형질을 찾는 부분의 사고과정이 상당히 복잡적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양별 5개로 줬어요. 아마 눈썰미가 좋아서 빠르게 힌트를 잡아내신 분들은 빨리 푸셨을 거고 못 찾으신 분들은 꽤 오랜 시간 헤매셨을거 같아요. 하지만 문제 부분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법하기 때문에 해설을 다시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05 ④ (☆★★★★)

아이디어 체크

생식세포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형성된 두 개의 세포의 DNA량을 더하면 분열전 세포의 DNA량과 같다.

해설 비분리가 1회 발생한 생식세포의 형성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포의 핵상으로 가능한 것은 $2n$, n , $n+1$, $n-1$ 이 있다. 이러한 핵상의 세포가 모두 관찰되기 위해서는 감수1분열이 아닌 감수2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하여야한다. 감수2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핵상이 $n+1$, $n-1$ 인 세포는 무조건 생식세포여야하고, ④, ⑥, ⑦를 가장 많이 가지는 IV는 DNA복제가 일어난 핵상이 $2n$ 인 세포임을 알 수 있다. DNA복제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복제가 일어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④, ⑥, ⑦개수의 합의 최댓값은 6개이기 때문이다. 핵상이 n 인 세포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 세포가 핵상이 $n+1, n-1$ 인 세포의 분열전 감수2분열 세포라면 I, II, III의 ④, ⑥, ⑦개수의 합에서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값과 같은 경우가 있어야하는데 없으므로 모순이다. 다른 감수2분열의 세포라면 I, II, III의 ④, ⑥, ⑦개수를 합한 값이 8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핵상이 n 인 세포도 생식세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핵상이 n 인 세포의 ④, ⑥, ⑦개수의 합에 2를 곱한 값과 핵상이 $n+1$, $n-1$ 인 세포의 ④, ⑥, ⑦개수의 합을 모두 더한 값이 8이 되어야하므로, 핵상이 n 인 세포는 I, $n-1$ 인 세포는 II, $n+1$ 인 세포는 III임을 알 수 있다.

- ㄱ. 비분리는 감수2분열에서 발생했다. (○)
- ㄴ. III의 핵상은 $n+1$ 이다. (×
- ㄷ. 핵상이 $n+1$ 인 세포와 $n-1$ 인 세포가 분열하기전의 감수2분열세포는 ④, ⑥, ⑦개수의 합이 6이 되는데 ④, ⑥, ⑦는 모두 독립된 염색체에 존재하므로 이 말은 ④, ⑥, ⑦만을 가진다는 말이 되고, 핵상이 n 인 세포가 분열하기전의 감수2분열 세포는 ④, ⑥, ⑦개수의 합이 2가 되므로 ④, ⑥, ⑦중 하나만 가진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두 쌍은 이형접합이고 한 쌍은 동형접합임을 알 수 있다. (○)



Comment

이 문제의 아이디어 체크에 나온 내용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문제처럼 개체의 구체적인 유전자형이나 I~IV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지면 막상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버려요. 당연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설지와 다른방식으로 푸셨다면 해설지의 풀이도 아이디어 체크와 더불어 다시 음미해보시길 바랍니다!

06 ⑤ (★★★★★)

해설 우선 유전병 ⑤을 보면 구성원 1과 2의 유전자형이 같으므로 유전병 발현상태가 같다는 것인데, 가족전체에서 ⑤을 가지는 사람이 2명이다. ⑤이 우성형질이라면 구성원 1, 2가 ⑤을 가지는 것이고 3, 4의 유전자형은 두 사람 모두 BB가 된다. ⑤이 열성형질이라면 구성원 1, 2는 ⑤을 가지지 않고 3, 4의 유전자형이 두 사람 모두 B*B*가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3, 4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으로 같은데, 그 말은 3, 4는 조건에서 말한 ⑦과 연관된 형질의 유전자형도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1, 2는 서로 ⑤ 유전자형이 같고 3, 4도 서로 ⑤ 유전자형이 같은데 구성원 전체에서 ⑤를 가지는 사람이 3명으로 홀수이므로 모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은 ⑦과 연관된 형질임을 알 수 있다. 이제 ⑦을 보면 1의 유전자형은 AA이고 2의 유전자형은 AA*인데 A가 A*에 대해 우성이라면 1~4의 형질이 모두 같아야 하므로 A*가 A에 대해 우성임을 알 수 있다. 즉, ⑦은 우성형질이다. 마지막 조건을 보면 1과 2사이에서 ⑦~⑤를 모두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frac{3}{8}$ 즉 $\frac{3}{4} \times \frac{1}{2}$ 인데 독립된 한 쌍의 이형접합끼리의 교배에서는 특정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frac{1}{2}$ 가 나올 수 없으므로 $\frac{3}{4}$ 은 ⑤을 가지는 표현형을 선택하는 확률임을 알 수 있다. 즉 ⑤은 우성형질이다. ⑤은 ⑦, ⑤을 모두 가지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되는데, ⑤이 열성형질이 되어버리면 ⑤을 가지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만 해도 $\frac{1}{2}$ 보다 작은 $\frac{1}{4}$ 이 되기 때문에 ⑤도 우성형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원 2는 A, B가 연관된 염색체와 A*,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가짐도 알 수 있다. 구성원 1~4의 유전자형과 유전병 발현상태는 아래와 같다.

구성원 1 : AABB*CC*, (나), (다)발현

구성원 2 : AA*BB*CC*, (가), (나), (다)발현

구성원 3, 4 중 한명 : AABBCC, 모두 발현되지 않음

구성원 3, 4 중 한명 : AABBCC* 또는 AABBC*C*, (다)발현

- ㄱ. ⑦, ⑤의 대립유전자는 같은 연관군에 속한다. (○)
- ㄴ. ⑦~⑤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
- ㄷ. 3, 4는 (가), (나)의 발현상태는 같고, (다)의 발현상태는 서로 다르므로 선지에서 요구하는 확률은 결국 1과 2사이에서 ⑤을 고려하지 않고 ⑦, ⑤가 모두 발현되지 않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frac{1}{4}$ 이다. (○)